

“종단 역사를 통틀어 이런 자리는 처음”

■ 언론·각계반응 찬사 일색

‘벼랑 앞에 선 심정’
‘백년대계 불 밝혀라’
‘폭탄발언’과 ‘속마음’
떨어놓는 모습 전해

조선 관련기사 3꼭지
중앙 동아 등 일간지
큰 비중 상세 보도...

온라인 후기도 이어져



희망에 찬 즐거움, 의제 선정을 위한 조별 토론을 마치고 결과를 발표하는 각 조(모듬) 구성원의 표정에서는 각오와 함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볼 수 있었다. 오른쪽 사진은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인터넷 관련기사 캡처.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에 대한 불교계 안팎의 관심이 뜨겁다. 조계종이 지난 1월28일 공주 태화산 한국문화연수원에서 개최한 100인 대중공사에 대해 대부분 중앙일간지와 인터넷 언론 등이 큰 비중으로 다루면서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한 종단의 노력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켰다. 대중공사 참가자들도 현장에서 느낀 소회와 느낌들을 후기로 남기는 등 대중공사의 열기가 확산되고 있다. 조선일보는 관련 기사를 세 꼭지로 나눠 보도하는 열성을 보였다. “스님이 식당서 ‘야, 여기 물 가져와’ 반말” “일반 시주로 운영 안돼 비싼 연동 부탁도”라는 다소 자극적인 제목을 사용했지만 기사를 통해 “쇼일 것이라는 걱정은 사람이 모이고 시간이 흐르면서 사라졌다”고 전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이날 하루 종일 자리를 함께 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의 발언을 1면 기사로 비중 있게 다뤄 눈길을 끌었다. 총무원장 스님이 현 종단의 풍토를 스스로 모질게 비판했다는 내용과 ‘폭탄발언’ ‘속마음’을 털어놓는 모습을 전하며 대중공사의 진정성을 표현했다.

동아일보는 “종단혁신과 백년대계 불을 밝혀라”는 제목을 뽑아 대중공사 현장을 소개했다. 동아일보는 “종단 수장인 총무원장에서부터 젊은 불자까지 함께 참여하는 대규모 대중공사는 현대 불교 초유의 일”이라고 평가했다.

중앙일보는 “출가자 줄고 선거 잡음...조계종, 죽비 들다”를 제목으로 뽑았다. 이 신문은 ‘불교 조계종이 위기다...조계종이 벼랑 앞에 선 심정으로...’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종

단이 처한 위기와 내부의 위기의식을 내비쳤다. ‘종단 역사를 통틀어 이런 자리는 처음’이라고 평가한 중앙일보는 △활기 잃어가는 불교 △무너지는 공동체 △스타급 선사 부재 △종교불교의 위협 등 주제별로 나눠 참석자들의 발언을 인용하며 상세히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불교 수행자들이 번뇌에 얽매어 범부가 되었다”는 제목으로 대중공사를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100인 대중공사가 열린 이유에 대해 “불교의 미래에 대한 비관적 인식 때문”이라고 전제하며 출가 비율이 줄고 스님과 신도의 교령화 현상을 원인으로 꼽았다. 한국일보도 조계종 사부대중이 모여 “한국 불교 현대사 최초의 대규모 대중공사”를 열었다며 총무원장 스님도 위원의 한 사람으로 자리를 함께 했다고 대중공사를 소개했다. 이어 한국일보는 주요 참석자들의 발언과 총

무원장 스님이 “스님들이 자기와 절 밖에 모른다”고 한 내용도 비중 있게 다뤘다. 하지만 “지금은 품 잡는 다거나 ‘쇼’ 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는 10~20년 후에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는 총무원장 스님의 발언으로 기사를 마무리하며 대중공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세계일보도 ‘조계종 100인 대중공사 “젊은 층 포교 서둘러 않으면 미래 없다”’는 제목으로 많은 비중을 할애해 상세히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대중공사 출범식부터 사진과 기사를 엮어 현장을 실시간 중계했다. 경제 전문지인 매일경제신문도 직접 현장을 찾아 보도하는 열의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대중공사 위원으로 참가한 스님들과 불자들의 반응도 뜨겁다. 서산 천장사 주지 허정스님은 온라인 천장사 카페(cafe.daum.net/amjaesa)에 ‘100인 대중공사를 다녀와서’라는

글을 통해 모듬토론의 과정과 8가지 의제 선정 과정을 자세히 소개했다. 허정스님은 후기에서 “여러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효과적으로 모은 다양하고 광범위한 의제들을 빠짐없이 논의하려면 시간이 많아야 하고 지속적인 관심도 필요할 것”이라며 종단 중요직책 스님들의 재산공개, 사찰주지 임명 시 노스님을 모셔야 한다는 규정 제정 등 “승가공동체 회복을 위해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일들을 실행하자”고 제안했다.

유지원 전북불교네트워크 대표 역시 네이버 ‘벤드’를 통해 “종단의 수장부터 20대 신자들까지 종단의 미래를 논하는 평등한 자리를 시도했다는 자체가 불교가 가진 큰 동력 중의 하나”라고 평가하며 “오전부터 어두워질 때까지 함께 하며 종단의 백년대계를 위한 8대 의제를 만들어냈다. 미래지향적 대안을 만들 것인지, 만들어진 대안을 어떻게 실천적으로

구현해낼 것인지 갈 길이 멀고도 힘들 듯싶다. 일단 동의하고 자리에 함께 했으니 최선을 다 해야 하는 것이 도리일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대해 조계종 기획실장 일감스님은 “세간은 그동안 불교가 보수적이고 권위적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100인 대중공사는 총무원장 스님부터 대불련 학생까지, 출·재가와 사부대중이 모두 내려놓고 똑같은 입장에서 토론하는, 가장 불교적이면서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세간이 대중공사를 보며 불교가 화합하고 미래 가능성과 희망이 충분하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감동했고 이를 일만 언론이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감스님은 “이 같은 반응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2차 대중공사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며 차분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하영 연합뉴스 기자

문화·종교·예술	"50년간 佛敎가 사회에 해준게 뭐 있나"
기사	100자평 (232)
일석 : 2015.01.29 03:00	
자승 스님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서 자아비판... '종 경선' 부패와 폐타락 질타 "나도 출가해 잘 벗어나 다지고 온사 모시고 종단 정치만 해... 참선·포교 묵숨 걸고 안 한다"	

출가자 줄고 선거 잡음 ... 조계종, 죽비 들다
(중앙일보) 일석 2015.01.29 00:53 / 수정 2015.01.29 01:12
공주서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 종단 개혁학, 존경할 큰스님 적어 자승 총무원장 "초심으로 돌아가자" 언말까지 9차례 열어 개혁안 마련

향후 일정 및 8대 의제	
2차	2월 25일 종단 인재양성 포교프로그램 개발
3차	3월 25일 사찰 재정 투명화
4차	4월 29일 종단 신뢰 구축
5차	6월 24일 사부대중 참여를 통한 종단 활성화
6차	7월 29일 승가공동체 회복
7차	8월 26일 사회적 의제 실천
8차	10월28일 지역사회 사찰의 위상과 역할 강화
9차	11월25일 교구 중심의 지방 분권화

■ 어떻게 진행됐다 ...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에 참가한 위원들이 장시간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은 결과, 종단의 인재양성 포교 프로그램 개발 등 8대 의제가 선정됐다.

대중공사 출범식에 이어 참가자들은 브리핑으로 진행된 전체 토론회와 조별 모듬 토론, 종합토론을 거쳐 종단 혁신과 백년대계를 위해 △종단의 인재양성 포교 프로그램 개발 △사찰 재정 투명화 △종단 신뢰 구축 △사부대중 참여를 통한 종단 활성화 △승가공동체 회복 △사회적 의제 실천 △지역사회 사찰의 위상과 역할 강화 △교구 중심의 지방 분권화 등을 의제로 선정했다. 선정된 의제는 10개 모듬에서 토론회를 통해 제출한 의제 가운데 1차로 14개를 선정하고, 다시 투표를 통해 8개를 최종 확정했다. 또 우선 순위에 따라 오는 24일 오전

11시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진행되는 2차 대중공사에서 ‘종단의 인재양성과 포교 프로그램 개발’을 주제로 논의할 예정이다. 또 향후 대중공사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총 9회에 걸쳐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종합토론에서는 비구니 스님들과 재가자의 참여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으며, 사찰에 의견을 받아 토론회를 진행하자는 등 논의 방식과 장소, 일정에 대해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공동추진위원장 지홍스님은 “추진위원회에서도 비구니 스님과 재가 참여 확대 계획을 갖고 있다. 앞으로 열어 놓고 진행할 계획이며 제기된 의견은 논의를 거쳐 수용하겠다”며 “종단의 인재양성과 포교 프로그램 개발 등 선정된 의제들을 앞으로 순서대로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염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이경민 수습기자 kyloe@ibulgyo.com

1차 대중공사가 남긴 아쉬움

는 상에만 집착하고 있다”고 한국불교의 현실을 냉정하게 진단했다. 공동추진위원장 지홍스님은 100인 대중공사가 ‘현대판 조계종 결집’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몇 가지 아쉬움도 남겼다. 논의의 활성화를 위해 이미지 연상하기, 제시된 단어로 문장 완성하기 등의 방법이 도입됐지만 전통적인 의미의 대중공사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1차 대중공사의 주제가 ‘100인 위원들에게 듣는다’였음에도 정작 100

인 위원들이 한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서로의 의견을 조율해 공의를 모으는 전체토론은 이뤄지지 않았다. 모듬별로 토론회가 진행됐으며, 종합토론에서는 정리된 의제들을 각자 발표하는 데 그쳤다. 모듬토론을 통해 선정된 14개 의제를 두고 최종 의제를 선정하는 방식도 토론이 아닌 투표로 확정하는 절차를 거쳤다. 주어진 시간 안에 결과를 내야 하는 현실적 한계가 있더라도 대중공사라는 이름에 걸맞은 전체 토론회가 부족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참가자의 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현장에서 비구니 스님들과 재가 불자들의 참여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만큼 앞으로 이에 대한 의견 수렴도 필요하다. 대중공사가 평일에 진행돼 재가 불자들이 참여가 어렵다는 일부 의견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종단 혁신과 한국불교, 종단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첫걸음은 이미 시작됐다. 1차 대중공사에 나타난 아쉬움과 미흡했던 점을 개선해 다음 대중공사는 한층 발전된 모습이 되기를 기대한다.

참 불자 양성의 요람

팔공총림 동화사대구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본사
팔공총림 동화사
www.donghwasa.net

바르게 배워 널리 전하자



대구불교대학은 부처님의 숭고한 지혜와 자비사상을 바탕으로 대승보살정신에 입각해 불교적 인생관과 가치관을 확립하고, 전인교육의 실현과 유능한 불교 지도자의 육성을 목적으로 1992년 4월에 설립되었습니다.

광대무변한 불교의 세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초 지식을 튼튼하게 다지는 일이 필수적입니다. 불교의 기본이 되는 교리는 물론 역사와 문화의식과 예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갈래의 양식을 정확하게 이해할 때 불교의 총체적인 모습을 한 눈에 조감할 수 있습니다.

대구불교대학은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에서 인가한 동화사 부설 2년제 신도전문교육기관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불교의 세계를 이해하고 매일의 생활을 불자답게 살고 싶은 여러분을 이끌어 드립니다. 대구불교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본인의 재적사찰로 돌아가 개인의 수행생활과 더불어 사찰을 위하여 신도들을 이끌어 가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 대구불교대학 특성 |

- 대구불교대학은 대구 유일의 2년제 신도전문교육기관으로서 수행활동과 더불어 알찬 불교교육을 원하는 분들을 위하여 심도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대구불교대학은 절에는 다니지만 불교에 대해 모르거나 더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은 분들을 위하여 대덕 큰스님들과 권위있는 교수님들을 강사진으로 초빙하여 알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대구불교대학은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후 합창단, 108사찰순례단, 신악회, 자원봉사단 등에 참여하여 다양한 경험과 수행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 대구불교대학은 정법을 배워 그 배움을 세상에 널리 전하기 원하는 분들을 위한 다양한 포교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모집부문

구분	모집부문	강의시간
대학	주간반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4시
	야간반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 9시
대학원 (경전반)	금강경, 화엄경, 법화경, 아함경	(주간) 매주 수요일 오후2시~4시 (야간) 매주 수요일 오후7시~9시

●교과과정

과정	과목	영역
신도기본교육	공동과목	불교입문 과정 부처님의 생애
	필수과목	불교 개론 실천 및 수행
신도전문교육	선택과목	불교교리, 불교역사, 불교문화, 포교방법론
	성지순례	한 학기에 1회(총 4회)
철아수련회	한 학기에 1회(총 4회) 방학 중	
	사경	한 학기에 1회(총 4회) 방학 중
종단필수교육	4학기 중 1회	

●강사진

덕문스님(동화사 주지·본교 학장), 양관스님(동화사 승가대학장) 해월스님(전 해인사 승가대학장), 도일스님, 인해스님(대한불교조계종 교수이사리) 선지스님(전 동화사 승가대학장), 종안스님(해인사 승가대학 교수) 법광스님(동화사 포교국장·본교 교학처장), 천산스님(동화사 승가대학 교수) 각목스님(실상사 화엄학원 교수) 이덕진 창원대 교수, 윤영태 동국대 교수, 최영식 영남이공대 교수 등

●입학자격

불교를 바르게 배우고자 하는 불자는 누구나(단, 편입은 신도기반 교육을 이수하고 타 대학에서 6개월 이상 수료한 분)

●구비서류

입학원서(소정양식) 1통, 증명사진 2장 (단, 편입생은 수료증 사본)

●접수기간

2015년 2월 28일까지

●원서교부·접수

대구불교대학 교학처, 팔공총림 동화사 본·말사에서도 교부, 우편접수 가능

●입학문의

053)256-3725 (대구불교대학) 대구시 중구 문유관길 65(남산동)

●특전

-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시험 자격부여
- 재학 중 성적 우수자 장학금 지급

●개학

3월 7일(입학원서 접수는 2월 말까지, 선착순 접수)

